

Riverside

한강 공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지만, 여름의 장마철에는 모든 것이 뒤바뀐다. 불어난 강물에 잠긴 공원과 강변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을 보고 있으면 현실 상황이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태연하게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적응력'과 '낙천적인'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런 습성이 한국 사회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방증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이 '경쟁 사회'와 '환경 위기'를 경험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담긴 '그 낯선 여가의 현장'을 관찰하고 있다.

Riverside

Han River Park is a representative leisure space in Seoul, but everything changes during the rainy season in summer. Watching the parks submerged in the swollen river and the police controlling access to the riverside, the real situation feels like a scene from a disaster movie. Nevertheless, there are people who enjoy their leisure. I was surprised by their *adaptability* and *optimism*, but I thought that such habits proved the fierce competition for survival in Korean society. I observe *the unfamiliar scene of leisure*, which contains the process of people experiencing and responding to *the competitive society* and *the climate crisis*.